

국경을 넘은 연대:  
정체성의 확장



유네스코 토크  
2017년 6월 2일  
이재성·알파고·시나씨·김주혜  
사회 정의학

유네스코 토크 8

# 국경을 넘은 연대: 정체성의 확장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영국 르네상스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성직자인 존 던은 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의 첫 문장을 위와 같이 시작합니다. 인간은 결코 고립된 섬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에게 닿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더 빠르게, 더 가까이 연결되기 위해 발전을 거듭해 왔고, 2025년을 사는 우리는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숨 쉬는 이들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해진 오늘날에도, 역설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의 빗장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는 듯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는 ‘너’와 ‘나’의 경계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중심주의 및 경제적 보호주의를 표방하기 시작하였으며, 끊이지 않는 전쟁과 폭격 소식은 민족주의와 인종·종교 간 배타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

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및 이민자 증가라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존이라는 이름 하에 서로에게서 점차 거리를 두며 분리와 배척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너와 나를 가르는 이 올타리 안에서만 살 수 있을까요? 의식주를 비롯해 일상을 이루는 많은 요소들이 올타리를 넘어선 ‘관계’에서 비롯되는 만큼,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경계를 넘어 타인과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현실 속, 2025년 유네스코 토크는 정치적 수사를 넘어 개개인의 삶에 뿌리내린 세계시민성에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가 간의 경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시대에, 국가를 넘어 연결되는 ‘사람’을 조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국경을 넘은 연대: 정체성의 확장”이라는 이름의 유네스코 토크는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이번 연사들의 강연과 대담은 거창한 외교전략 혹은 정책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계시민으로서 거대한 도약을 외치기보다, 각자의 일상 속에서 더 큰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연결을 실천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야말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세계시민성과 평화의 본질에 가장 맞닿아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정의에 따르면, 세계시민성이란 더 넓은 공동체와 인류 전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호의존성과 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적 관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분리의 정치학 속에서도 연결의 담론을 형성하며 인간 존엄성과 평화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개개인의 실천과 담론이 모인다면, ‘세계시민’이라는 말은 단순한 표어를 넘어 우리의 삶 속에 체화되고, 연대의 목소리는 더 큰 무대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2년부터 유네스코 토크를 개최하며 우리 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 담론의 장을 제공해왔습니다. 세계시민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눈 2025년의 여름에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의제를 두고 건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더 많은 의견이 모여 유네스코 토크가 따뜻한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0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연결과 단절 사이, 세계시민성을 묻다



양지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문관

‘세계시민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거나, 나 하나 살기 바쁜 세상에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쉽게 서로를 구분 짓고, 때로는 단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탁에 오른 음식, 손에 쥔 휴대전화, 먼 나라에서 온 곁의 이웃까지, 그 어디에도 경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시민성은 면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맞닥뜨린 현실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올해 유네스코 토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체감되는 세계시민성

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축구선수 이재성 님은 경기장에서 경험한 팀워크를 통해 “혼자 빛나는 것보다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알파고 시나씨 기자님은 자신을 “가공된 한국인”이라 표현하며,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가 세계시민의 핵심임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김주혜 작가님은 “세계시민성은 소비가 아니라 창조이며, 곧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세계와 연결되는지를 성찰하게 했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였습니다. 바로 ‘연결’입니다. 세계시민성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일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려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국제 담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2012년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전 지구적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이는 2015년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교육 2030(Education 2030)’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세계시민성은 2030년까지 국제 사회가 함께 달성하기로 한 글로벌 교육목표의 핵심으로 자리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토크는 세계시민성이라는 국제적 목표가 단순한 선언이나 이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경험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무대였습니다.

혼자만의 고민으로는 이번 유네스코 토크가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귀한 진심과 경험을 나눠주신 축구 국가대표 이재성 선수님, 김주혜 작가님, 알파고 시나씨 기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토크의 중심을 잡아주신 사회자 정준희 교수님, 그리고 세바시 구범준 대표님과 이한나 PD님을 비롯한 모든 세바시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속적으로 유네스코 토크를 응원해 주신 교육부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일 저녁, 유네스코 토크에 뜨겁게 화답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묵묵히 토크를 듣는하게 뒷받침해주신 신종범 실장님과 네트워크사업실원분들, 특히 올해 큰 규모의 토크를 짧은 시간에 함께 준비한 김가연, 이재진 인턴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담집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세심히 교열해주신 이의진 선생님, 표지 디자인의 김기현 디자이너님, 본문 디자인의 정명진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듯, 이번 유네스코 토크가 세계시민성을 일상 속에서 되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년 유네스코 토크에서 뵙겠습니다.



## 차 · 례

유네스코 토크 5

기획자의 말 8

국경을 넘은 연대: 정체성의 확장 15

강연 • 17

내가 동료의 꿈과 함께 뛰는 이유 \_ 이재성 • 17

나는 ‘가공된 한국인’입니다 \_ 알파고 • 31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_ 김주혜 • 49

대담 • 68

세계화 속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 71

이해, 책임, 그리고 실천 • 75

차별 없는 공존,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 80

존중을 향한 첫 걸음 • 87

청중과의 대화 • 92

# 2025 세바시 X 유네스코 토크 특집 강연회 국경을 넘은 연대 : 정체성의 확장

2025. 6. 17화, 19:00 ~ 21:00  
영등포아트홀



이재성  
국가대표 축구선수



# 국경을 넘은 연대: 정체성의 확장



<이재성 선수 강연>

## 내가 동료의 꿈과 함께 뛰는 이유

● **이재성**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이자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 05(FSV Mainz 05)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재성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성 선수

독일 분데스리가 FSV 마인츠 05 소속 축구선수이다. 2014년 프로로 데뷔하였으며, 주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이다. 2024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유네스코 프렌즈'로 위촉되었으며, 2025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축구공' 캠페인을 런칭하였다.

시즌을 치르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언론 인터뷰도 자주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2024년 12월 14일, 바이에른 뮌헨(FC Bayern München)과의 경기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물론, 그 경기도 저에게 매우 인상 깊고 특별한 경기였던 건 분명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세계적인 명문 구단으로 손꼽히는 팀인데요, 그런 팀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었죠. 특히 그 경기는 뮌헨에게 시즌 첫 패배를 안겨준 경기였기에, 제게는 더없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경기 직후, 대표팀 동료인 김민재 선수도 인터뷰에서 “마인츠 선수들 모두가 정말 열심히 임했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경기였을까요? 바로 그다음 경기였던 프랑크푸르트(Eintracht Frankfurt)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그날 저희 팀은 경기 초반부터 아주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전반 초반에 선제 골을 넣으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고, 선수들 모두 자신감 있

게 경기에 임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인 나딤 아미리(Nadiem Amiri) 선수가 다소 위험한 태클로 퇴장 을 당한 거죠. 이 갑작스러운 퇴장으로 인해 저희는 남은 약 70 분 동안 수적 열세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선제골로 앞 서고 있긴 했지만, 원정 경기라는 점,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수적 열세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 흐름 속에서 저도 솔직히 마음 한편에선 걱정이 들었어요.



그 순간, 주변을 둘러보며 함께 뛰는 동료들의 얼굴을 보니 문득 그런 걱정이 참 쓸데없는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선수들은 오히려 11명이 뛸 때보다 더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경기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누군가 쓰러지면 곧바로 달려가 일으켜 세우고, 지칠 틈도 없이 또 뛰고 또 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팀워크 덕분에, 저희는 결국 3대 1이라는 믿기 힘든 결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요. 한 명이 빠졌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선수들이 그 빈자리를 기꺼이 채워주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가며 하나의 팀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보여준 동료들의 헌신과 의지는 정말 고마웠고, 또 너무나 멋지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제게는 단순히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진, 가장 기억에 남고 감동적이었던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축구가 더 이상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축구라는 경기 안에는 단순한 기술과 전략을

넘어, 더 깊은 삶의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 는 걸 느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제가 유럽 진출이라는 꿈을 품고 나아갔을 때, 그리고 현실과 마주했을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간 팀은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로 막 승격한 홀슈타인 키尔 (Holstein Kiel)이라는 팀이었어요. 키爾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는 낯선 도시일 겁니다. 그런데 도시보다 더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던 건,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 의 시선이었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는 하루 종일 낯선 언어가 쏟아졌고, ‘아시아에서 온 선수가 얼마나 잘하겠어’라는 식의 의심 어린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던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낯설었던 것은 독일의 문화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문화가 제게 큰 인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선생님이나 코치님, 선배들에게 “이 전술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 다”라든지, 혹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는 식의 말을 하기 가 참 어렵잖아요. 어떤 태도를 보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느껴 도, 그런 말을 직접 꺼내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고요. 저 역시 그

렇게 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경기장이든, 미팅 자리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무척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엔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더 놀라운 건, 그런 질문이나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자연스럽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태도들이 결국 ‘팀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런 문화가 단지 코치나 감독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동료 선수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팀 동료가 실수를 하거나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면, 속으로 ‘다음엔 잘하겠지’하고 기다려 주거나 조용히 격려해 주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저 역시 그런 방식에 익숙했는데, 독일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때로는 같은 팀 동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실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아주 거칠고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들이 너무 강해서 ‘이 선수가 나를 싫어하나?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죽고 깍이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 말과 행동은 결코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팀을 위해, 모두가 서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식이라는 걸요.

이런 문화 속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배움이 있었습니다. 축구는 개인의 기량을 뽐내는 무대가 아니라 진정한 팀 스포츠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강한 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또 각자의 강점을 잘 살려줄 때 비로소 진짜 강한 팀이 만들어진다는 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팀워크의 진정한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면, 대표팀에서의 저와 손흥민 선수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아시다시피, 저와 손흥민 선수는 경기 스타일이 꽤 많이 다릅니다. 손흥민 선수는 폭발적인 스피드, 날카로운 드리블, 그리고 양발 슈팅 능력까지 갖춘, 전형적인 피니셔이자 공격의 중심이죠. 반면, 저는 볼을 연결하고, 넓은 활동량으로 팀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주로 맡습니다. 경기 안에서는 제가 손흥민 선수에게 필

요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손흥민 선수는 그 기회를 빠르게 포착해 자신의 장점으로 마무리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존재이며,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중요한 경기일수록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오늘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팀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찾아내고, 실제로 경기에 녹여냈을 때, 그리고 그 플레이가 결국 팀의 승리로 이어졌을 때, 그 기쁨은 내가 골을 넣거나 눈에 띠는 활약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경기가 끝난 뒤, 제가 늘 잊지 않고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대 선수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 서로가 팀의 승리를 위해 한 주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했고, 또 90분 동안 온 힘을 다해 뛰었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서 본 사람으로서,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싶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면 꼭 그

런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축구를 하며, 서로 다르지만 함께 이겨내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구의 본질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축구라는 스포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팀을 사랑하고 지지해 주는 팬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바로 그 소중한 존재들이고요. 지난 시즌, 강등 위기에 있던 저희 팀을 그렇게까지 열렬히 응원해 줄 수 있는 팬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끝까지 저희를 믿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팬들뿐만 아니라, 마인츠라는 도시 전체가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동적이었고,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선수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기적처럼 분데스리가 리그 마지막 9경기를 무패로 달리며 결국 잔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축구를 하며 제가 배운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모두 달랐지만, ‘승리’라는 공통된 꿈을 위해 우리는 하나의 팀, 하나의 공동체, 때로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거듭하면서, 저는 축구장이 작지만 어쩌면 ‘세계화가 응축된 작은 공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축소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축구 선수로서의 제 일이 세계와 연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뛸 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지만, 독일 리그에서는 국적을 넘어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한 팀의 일원으로 함께 뛰는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최근에 ‘세계시민 의식’이라는 말을 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의 정의에 따르면, 세계시민성이란 지역, 국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더 넓은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계시민성이 꼭 거창한 사명감이나 특별한 일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 곁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세계시민성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최근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투게더(Together)’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연결된 세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제가 축구를 통해 느끼고 실천하고자 했던 것도 결국 이 ‘투게더’ 정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연결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역시, 이미 세계시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적 박지성 선수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가 유럽 무대에서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며 자연스럽게 한 팀의 일원으로 녹아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 ‘나도 저런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죠. 그 꿈을 꾸던 저는 지금, 그 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독일 무대에서 뛰며,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고, 호흡을 맞추며, 경기장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단지 저 혼자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곁에서 함께 뛰고 있는 동료들의 꿈, 그리고 경기를 지켜보는 아이들의 꿈까지

도 함께 품고, 함께 뛰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지금까지 축구를 하며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빛나는 것보다,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 멋진 일입니다.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나눌 때 우리는 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은 멀리 국경 밖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축구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연결하고, 함께 뛰며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누군가의 꿈을 함께 뛰어주는 ‘세계시민’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축구가 어려우신가요, 강연이 어려우신가요?

● 이재성 : 강연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웃음)

● 진행자 : 강연을 마치신 소감을 짧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이재성 : 우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너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셔서 더 감동이었고요. 사실 많이 떨렸지만, 여러분 덕분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 **진행자** : 사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시즌 중에는 경기 외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연 일정도 잡기 어렵고, 컨디션 조절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재성 선수는 국가대표 경기와 병행해서 이 강연을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재성 선수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선택하신 분은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 **청중** :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99년생 이시훈이라 고 합니다.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이재성 선수의 열렬한 팬이라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축구 선수를 포함해서 해외 진출을 꿈꾸



는 사람들에게 혹시 미리 깨면 좋을 환상이라든가, 특별히 준비하면 좋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재성** : 내가 언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을지, 그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꿈을 지켜 나가며, 지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 유럽 진출까지 몇 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켜 왔고, 끝까지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재성 선수는 강연 이후에 이어지는 대담 시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할까요?

● **이재성** :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지금까지 이재성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고 시나씨 기자 강연>

## 나는 ‘가공된 한국인’입니다

● **알파고** : 많은 박수 감사합니다.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제 유튜브 채널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한 번 들러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알파고 시나씨 기자

대한민국의 기자이자 코미디언이다. 튜르키예에서 태어나 2018년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하였다. 2010년부터 튜르키예 통신사의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기자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본업과 더불어 방송인 겸 코미디언으로도 활동 중이다. '알파고의 지식캠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저서로는 『누구를 기억할 것인가?』, 『세계 독립의 역사』, 『있는 그대로의 튜르키예』가 있다.

오늘은 제가 세바시 강연에 두 번째로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강연 주제가 국경을 넘은 연대, 정체성의 확장이라는 말을 듣고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웃음) 혹시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소에 해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영상을 찍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 내가 해외를 자주 다니니까 이런 주제를 주셨나 보다’ 했죠. 그런데 기획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알파고 씨, 우리의 진짜 주제는 세계시민입니다!” 아, 세계시민! 좋은 주제죠. 그런데 솔직히 처음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주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하지?’ 하고요. 오늘 함께 강연하시는 두 분은 진짜 생(生) 한국인이십니다. (웃음) 그에 반해 저는 ‘가공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시민이나 인종차별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저만의, 조금은 다른 시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접근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무대가,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좀 더 흥미롭고 색다르지 않을까 하는 작은 자부심도 있습니다.

제가 ‘가공된 한국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04년, 저는 튀르키예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1773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이스탄불 공과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유학을 가면 더 넓은 세상이 열릴 거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였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중동 출신 사람들이 서양, 특히 유럽에서 유학하면 편견이나 차별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시선을 좀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 나는 동양으로 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러면 동양 중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을 선택하게 된 과정도 하나의 스토리인데요. 하지만 여기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지, ‘알파고를 소개하는 15분’은 아니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웃음)

저는 원래 한국에서 공대를 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대 진학은 접고, 2006년에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은 정말 드물었어요. 그러다 보니, 졸업하고 나서 6개

월도 안 돼서 튀르키예 최고의 언론사에 한국 특파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20대 초반이었는데, 벌써 특파원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을 취재해서 본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죠. 말 그대로,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시기였습니다. 외국인 특파원이라고 하면 좀 낯설었던 시절이니까요. “알파고 씨, 기사 좀 예쁘게 써주세요.” 이런 부탁도 받고, 때론 좋은 자리에도 초대받고요. 정말 어디를 가든 환대를 받았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무엇이든 좋은 시절엔 끝이 오는 법이죠. 그 무렵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일하던 언론사와 튀르키예 정부가 충돌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이 주제는 다루지 마라.” 또는 “그 사건은 그냥 눈감아라.”며 우리 회사에 대놓고 지시를 해왔죠. 그런데 진짜 언론인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더 자극받습니다. “하지 마라” 하면 더 깊이 파고들게 되거든요.

사실, 정권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죠. 그게 더 안전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언론사와 정부는 아주 격하게 충돌했

고, 그 결과, 정부는 우리 회사를 강제로 인수해버렸어요. 저보다 먼저 기자 생활을 하던 선배들 대부분은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언론이 자유롭지 않고, 기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세상. 언론의 역할이 뭐죠?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언론은 감시 대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정권을 찬양하게 되면? 그다음은 뻔하죠.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튀르키예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영향은 해외 특파원이었던 저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정부는 해외에 있던 기자들까지 강제로 송환하려고 했고, 저도 똑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저는 그나마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송환되지는 않았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제 인생의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제 기억 속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의 기자 선배들과 후배들로부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제가 정치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 인터뷰를 해주고, 제 이야기를 세상에 대신 전달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자유를 박탈당한 언론의 피해자로서 그분들의 마이크를 빌려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상호 간의 연대이자 교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과 이야기들을 전해줌으로써 한국 사회도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면, 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 사례를 통해 간접적



으로 느끼고, 고민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제가 “나는 이제 한국인이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걸로 완전히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가 저를 한국인으로 받아주고, 인정해줘야 비로소 그 정체성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인천공항을 자주 갑니다. 공항이 봄별 때는, ‘외국인 줄’과 ‘한국인 줄’로 출국 심사 줄이 나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국적자니까 당연히 한국인 줄에 섭니다. 그런데 가끔 직원분이 다가와서 아주 친절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Excuse me, this line is for Koreans only.”(실례합니다. 이 줄은 한국인 전용입니다.) 그럴 때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 시민으로서 ‘저 한국인 이에요!’하고 말하고 싶지만, 대신 바디랭귀지로 조심스럽게 응답합니다. (웃음) 그리고는, 자랑스러운 무궁화 상징이 새겨진 여권을 천천히 꺼내서 이렇게 보여줘요. “이거 보세요. 우리 여권이에요. 저도 같은 동포예요.” 근데 그 순간, 직원분이 여권을 이렇게 한참 보시더니 동료 분에게 “언니, 이 외국분이 한국 여

권을 주웠대요… 우리한테 줬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요. (웃음) 이런 일들,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바로 ‘세계시민’,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연대’, 정체성의 확장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는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유럽에 가보 시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국경 자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국경 심사 없이 나라에서 나라로 자유롭게 이동해요. 하나의 나라 시민이자, 동시에 유럽 대륙 전체 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국경’은 그런 물리적인 경계선만 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국경,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경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지금 인터넷 시대, 초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인터넷 혁명 이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국경이라는 개념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저 멀리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누군가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음식을 따라 만들고,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는 동시에 자신을 어느 정도는 ‘한국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한국 시민이 아니지만, 문화적으

로, 정서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요즘 다국적 기업들만 보더라도, 거의 ‘하나의 국가’ 수준입니다. 예산 규모만 봐도 웬만한 소규모 국가 예산보다 더 큽니다. 이 기업들이 만든 제품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제품을 같이 소비합니다. 이 기업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는 이미 ‘국적’이나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흐려졌어요.

또 하나, 국제결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30~40년 전만 해도 국제 커플이라는 건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아니, 그 시절에는 이승만 대통령 정도는 돼야 국제결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어요. (웃음) 그런데 지금은요? 너도 나도 국제 커플! 길거리만 나가도, 친구들만 봐도, 정말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아랍에미리트나 한국 같은 나라들이 디지털노마드 비자(Digital Nomad Visa)를 발급하고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죠? 원격 근무자 즉, 꼭 사무실에 가지 않아도, 집이나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미 자기 나

라에서, 혹은 전 세계를 돌면서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마주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지식(Knowledge)과 미덕(Virtue)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시죠?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말을 꺼내면요.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해시태그들이 있어요. #문화다양성, #다문화, #이민, #난민… 이런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를 들으면 몇몇 분들은 갑자기 홍분하십니다. “뭐야, 그럼 난민 다 받자는 얘기야?” 또는 “한국을 이민자 국가로 만들자는 거야?” 등의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혀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반응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웃음) 왜냐하면 제 아내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책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벌써 책을 7권 넘게 냈고, 지

금도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꼭 나옵니다, 그 말. “그렇게 난민이 좋으면, 데리고 같이 사시든가요!” 사실, 이미 같이 살고 있어요. (웃음) 그 난민(?)이 바로 접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세계시민 의식과 이민 정책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자꾸 엮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종종 한국을 떠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



면 꼭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들으면, 한국 시민으로서 제 마음이 살짝 짠해지기도 해요. 그 친구들이 “알파고, 그렇게 인종차별 심한 한국에서 중동 사람으로 사는 거, 괜찮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론 저는 21년째 한국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런 질문들이 과한 것 아닌가 생각했어요.

살다 보니 그 질문이 완전히 근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예를 들어, “알파고, 혹시 아버지의 몇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또 “돼지고기 안드시는 거 보니까, 혹시 돼지를 신으로 모셔서 그런 거예요?”라는 질문도 받았어요.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 중동 출신이면… 가끔씩 때리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깝죠. (웃음) 사실 더 심한 질문들도 있었지만,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이상한 질문들을 받아도,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크게 불만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드릴게요. 예전에 한 번은 밤 1시쯤, 편의점에 들어가서 컵라면을 사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점주가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면서 저를 내쫓

았어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 저는 유튜브 댓글도 잘 안 읽고, 가게 리뷰 같은 건 거의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너무 속상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앱을 열고, 제 분노를 그 안에 한번 쏟아보자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제가 그 가게를 클릭하는 순간, 기분이 아주 속 시원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 가게에 달린 리뷰들이 전부 악플인 거였어요. 다들 별점 5점 만점에 1점씩 주고 있고요, 어떤 리뷰에는 “예전에 직원을 때렸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라기보다 그냥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외국인인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동포한테도 상처를 주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꼭 인종차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불친절하고,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일 뿐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인종차별의 중심에는 결국 ‘미덕의 부족’, 그리고 ‘지식의 부족’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알파고는 너희 아빠의 몇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거냐?” 처음 들었을 땐 저도 좀 당황했죠. ‘이걸 왜 나한테 묻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분이 정말로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동안 마음속에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걸, 이제 저랑 좀 친해졌다고 느끼니까 조심스럽게 꺼낸 거죠. 악의가 아니라, 단지 몰랐던 것에서 비롯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럴 땐 그냥 그 질문에 대해 차분하게 답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의 지식은 한 뼘 더 넓어지고, 다음엔 그런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결국 핵심은 지식과 미덕의 부족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그냥 설명해 주세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몰랐던 거니까 알려주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그 사람 원래 한국 사람들한테도 그래. 너만 그런 거 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외국에 나가서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면, 지금처럼 조금 더 여유 있는 태도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있다면, 먼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번 경우가 진짜 인종차별인지, 아니면 단순히 미덕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당한 일인지 구분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미덕이 부족한 사람에게 당한 거라면, 이렇게 말해

줄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야. 그냥 같은 민족한테도 그렇게 행동하는, 미덕이 부족한 사람이야.” 또는 “그 사람은 그냥 잘 몰랐던 거야. 알려줬으면 다음엔 안 그랬을 거야.”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바로 지식과 미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말로, 어디서든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세계시민’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남의 부족한 지식은 채워줄 수 있지만, 부족한 미덕은 채워주기 어려워요. 그건 사회 전체, 특히 교육 기관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육도 다음 세대를 세계시민의 기준에 맞게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지식과 미덕으로 정의하신 게 인상 깊었는데요. 혹시 이런 개념을 따로 교육받으신 건가요?

● **알파고** : 사실 집에서 많은 실험의 대상이 되면서 덕분에 세

계시민에 대한 감각이 생겼어요. 매일 집에서 토론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배웠죠.

● **진행자** :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말씀해주시지만,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정의는 조금 뒤에 이어질 김주혜 작가 강연과 대담 시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알파고 기자님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 **청중** :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빠지고 온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꽤 모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파고님처럼 어릴 때 해외에 나가는 걸 준비 중인데요. 그런데 때때로 무섭기도 하고, 고민도 많아져요. 알파고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또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알파고** :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장학재단에 가서 면접을 봤

어요. 그 면접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면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추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튀르키예에 얼마나 자주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딱 잘라 말 하더라고요. “자주 못 갑니다. 많이 봐야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당시 저희 엄마 상황이 안 좋았어요. 지금은 한국에 오고 나서 기적처럼 건강이 좋아지셨지만, 그때는 3개이나 6개 월에 한 번꼴로 갑자기 병이 악화돼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거의 생명이 위태로운 수준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상상해봤어요. 만약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월요일에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2004년 당시에는 한국에서 튀르키예 가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딱 두 편밖에 없었어요. 금요일과 일요일. 엄마가 정말 돌아가셨다면 저는 장례식에도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을 가야 하나? 엄마 장례식에도 없을 아들이라면, 내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갈등했죠.

그러다가 저는 가끔 인생에서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말엔 전제가 있어요. 위험 수치가 높은 나라에는 가지 마세요. 외교부 여행경보 시스템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들 있죠? 그런 곳은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그 외의 나라들은 용기를 내서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말 명확한 답변이었습니다.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되,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인지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 대담 시간에도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알파고 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주혜 작가님 강연>

##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 김주혜 : 안녕하세요. 김주혜 작가입니다.

지난 가을, 제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이 톨스토이 문학상(야스나야 폴랴나 상)을 수상하게 되어 모스크바에 초청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야스나야 폴랴나는 바로 톨스토이 백작 가문



김주혜 작가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이다. 2016년 문예지 『그란타』에 단편소설 「보디랭귀지」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2021년 출간된 장편소설 데뷔작인 『작은 땅의 야수들』로 톨스토이 문학상 해외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2024년에는 두 번째 장편소설 『밤새들의 도시』를 출간하였다.

이 대대로 물려받아 살아온 영지입니다.

첫날부터 정말 인상 깊은 경험들이 이어졌는데요, 톨스토이 대문호의 고손자인 블라디미르 톨스토이 선생님을 비롯해, 러시아 문화계의 주요 인사들이 제 작품을 극찬해 주셨고, 함께 문학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상한 그대로, 러시아는 문화적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 중에서도 이분들은 정말 깊이 있는 지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반면 저는 혹시 도스토옙스키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들통날까 봐 모스크바에 가기 직전, 천 페이지가 넘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급히 읽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대화 도중 그 작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얼른 손들고 아는 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자부심 높은 러시아 문학계에서, 한국 지성인으로서, 또 한국 문학인으로서 어떻게 우리 문학의 지성과 인격을 잘 대표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안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던 중, 시상식 당일 아침, 호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제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블라디미르 톨스토이 선생님의 장녀, 아나스타시아 님이었고, 그 안에는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셨다는

기사와 함께, “오늘은 한국 문학에 있어 위대한 날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그 자리가 단순히 러시아 문학계와의 만남을 넘어서, 세계 문학 무대에서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자리임을 실감했습니다. 몇 시간 뒤, 볼쇼이 극장 무대에서 한 시상식연설은 단지 김주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한국 문학인으로서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고립주의로 인해 인류 전체가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는 이 시대, 러시아에서 문학의 본질이 왜 평화와 인도주의일 수밖에 없는지를 증언할 수 있었던 그날은, 저에게 세계시민성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세계시민성은, 한국에서 태어나 여러 나라에서 살아온 제게 평생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시민성이란 단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다는 뜻일까요? 물론,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 시야를 넓히는 것은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는 국제 뉴스를 자주 본다고 해서 곧바로 세계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도, 뉴스도, 외국 문화도 자칫 자기 중심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저 더 세련된 형태의 소비에

불과합니다.

세계시민성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아픔에 연대하며 치유에 기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계적 소비자가 아닌 세계적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을 수학적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マイ너스’도 ‘제로’도 아닌, ‘플러스’가 될 때,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보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계시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적, 인종, 언어를 뛰어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존엄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세계시민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세계시민성이 인간을 넘어 자연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80억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동물, 식물, 모든 생명체를 지탱할 푸른 행성을 보존하고 남기는 것이 21세기 세계시민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처럼 세계시민성은 내가 어떤 다국적 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문화적 경험을 했는가보다는, 내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환원하고 어떻게 책임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

계시민성이란 곧 책임입니다.

얼마 전 BBC 프로그램에 초대받아서 나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난민 이슈를 다룬 소설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다른 초대자는 베를린에 살고 있는 영국인 평크 록커였습니다. 제 배경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지금은 런던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 독일에 사는 한 영국인 록커처럼 저 역시 ‘이민자’는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영국이 저를 받아들이든 배척하든 상관없이, 저는 원하면 언제든 다른 나라로 옮겨가 살 수 있는 자유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나라를 떠나 외국에서 장기간 살아가는 사람을 영어로는 ‘expat(엑스팻)’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어에는 정확히 대응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엑스팻’이라는 표현에 오래도록 거부감을 느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백인을 연상시키며, 인종적 특권의식이 깔려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약 17년간 철저히 이민자로 살아왔습니다. 입국이나 체류에서 큰 제약을 받지 않는 엑스팻과 달리, 이민자는 이

주 자체가 어렵고, 차별과 억압에 노출될 가능성도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와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를 피해 탈출해온 난민들, 즉 '레퓨지(refugee)'들은 누구보다 가장 심각한 차별과 억압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비극적 현실입니다. 새로운 명칭들인 엑스팻, 이미그랜트(im-migrant), 레퓨지 등 세 부류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들이 아니며, 그 차이는 종잇장 하나처럼 얇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태어난 국적이나 현재의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체험이야말로, 제가 단지 저와 비슷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뿐 아니라, 더 넓게는 이 세계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의 데뷔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은 한반도에서 100여 년 전 벌어진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한 2015년 당시만 해도, 한국 역사소설은 영미권 출판계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작가의 이름부터 등장인물, 배경, 철학까지 전적으로 한국적인 이 작품을 저는 오히려 세계 독자들을 위해, 세계를 향해 쓰고자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혼자 원고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 독자는커녕 어떤 외국 독자에게라도 소개될 확률은 극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설은 예상을 깨고 세계 14개국에 수출되었으며, 국제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독자들과 직접 만나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이렇게 다양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작품이 여러 깊은 의미를 전달하게 되었다는 점은 저에게 커다란 개인적 영광으로 남았습니다.

브라질의 한 독자는 자신의 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억압 속에서 이 책을 읽으며, 영광과 용기를 얻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에게 한국의 독립운동사는 단순히 타국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서사였던 것입니다. 국경을 넘는 문학은 이처럼 단순한 지적 즐거움을 넘어, 때로는 정신적 양식이자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달 버클리대에서 저를 만나기 위해 콜로라도에서 찾아온 한 미국 독자도 인상 깊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기 전, 『작은 땅의 야수들』을 두 번째로 읽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와 이주자들이 겪고 있는 억압적인 정

치적 상황과 이 소설을 겹쳐보니, 더욱 큰 울림과 희망을 느꼈  
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또 한 분, 특히 깊이 기억에 남는 독자가 계십니다. 일본계 미  
국인이신 그분은 제 차기작 『밤새들의 도시』를 먼저 애독하신  
후, 그 여운으로 『작은 땅의 야수들』까지 읽게 되었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원래 그는 평생 동아시아 근대사에 대해 일부러 거리  
를 두고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극  
심한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그 분의 친할아  
버지는 1937년, 일본 제국군 소속으로 중국 난징에서 싸우다 전  
사했고, 아버지는 그런 가족사의 무게와 부끄러움으로 인해 알  
코울 중독에 시달리다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기작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으신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억  
눌러온 회피와 망설임을 극복하고 마침내 한국의 독립운동을  
다룬 소설까지 읽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독자분은 『작은 땅의 야수들』을 읽으며, 한일 양국 인물들  
을 통해 그려진 사랑과 인간성, 우정의 서사에 깊이 공감했고,  
마음속 깊은 치유를 경험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  
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책은 저를 감동시켰어요.  
저는 한국이 언젠가 통일되어 하나의 독립된 국가가 되기를 바

랍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 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처럼 펍박받는 이들에게 용 기와 희망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견고한 장벽을 허무 는 일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바로 세계 문학의 본질이자 책 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학은 국경과 인종, 정치와 문화를 넘 어,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자 하나의 인류임을 상기시키고 서로 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경험과 실천이 세계시민성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세계 문학이 지닌 가능성과 그 도리에 대한 확신은 제게 오랫동안 흔들림 없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단에 데뷔하기 전부터, 문학 활동과 사회 환원을 함께 이어가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 책들은 각각의 주제에 맞춰, 호랑이와 표범 보전, 소말리아 지역의 개발과 구조 활동, 그리고 민간 차원의 풀뿌리 동물 보호 운동에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활동은 한국 호랑이와 표범 보전 사업으로, 2021년부터 기부와 홍보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저는 한국의 유일한 호랑이·표범 보호 단체인 한국범보전기금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호랑이를 한국의 상징처럼 여기지만, 안타깝게도 약 1세기 전

일제 강점기, 민족 정신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사실상 절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호랑이와 조상들이 동일하게 '범'이라 불렸던 표범은 아직도 러시아, 중국,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약 600여 마리의 호랑이와 120여 마리의 표범이 수많은 위협을 견디며 꽃꽂이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보호구역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일부 호랑이 개체들은 본래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로 다시 이동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마침내 국경을 넘은 호랑이가 북한 쪽 백두산에서 목격되었다는, 가슴 벅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0여 년 만에 철조망과 강, 철도 같은 치명적인 장애물들을 넘어 호랑이가 한반도로 귀환한 것입니다. 한국범보전기금은 러시아와 중국의 생태학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야생 호랑이와 표범의 유전자를 연구하고, 밀렵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국경을 가로지르는, 한반도의 생태계 통로를 설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계속되는 고립주의와 정치적 갈등의 시대에, 국경을 초월한 민간 단체들과 과학자들의 협력은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범민족적이자 범지구적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국범보전기금의 활동에 참여하며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국경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정한 경계, 정권, 이념, 경제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생명은 본능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책무입니다. 세계시민성이란, 단지 인류 사이의 연대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 그리고 협력의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저는 한국

범보전 활동을 통해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성이란 단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지, 어떤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문학, 스포츠, 영화 등 어떤 분야에서 세계적 우수성을 입증받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정한 세계시민성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범인류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가치 판단이어야 합니다.

여러 나라를 오가며 살더라도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한 평생 한 도시에 살면서도 온 인류를 향해 마음을 열고 책임을 다합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을 통해, 저는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인 인간의 고통과 존엄, 용기와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범보전 활동과 아프리카 구조와 동물 보호 사업은 제가 한 사람의 세계시민으로서, 그리고 세계 문학을 쓰는 작가로서 문학의 본질인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계시민성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멀리 나아갔느냐가 아닌, 우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 즉 자유, 평등, 존엄성, 사랑과 자비를 언어로, 예술로, 과학과 사회 운동으로 전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세계시민이란 다른 나라로 쉽게 여행하고 체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과 생명과 지구에 대한 책임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문학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삶을,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저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곤 합니다. 2021년 초, 『작은 땅의 야수들』의 계약을 마치고 선인세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받은 큰돈이었기에 뜻깊은 곳에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호랑이 보존 비영리단체인 피닉스 펀드에 기부를 한 것입니다. 기부 후, 저는 피닉스 펀드의 대표님과 화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랜 소망을 이루어 들뜬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단체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자 대표님은 잠시 미소를 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성과를 기대하며 기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지금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20년, 30년 뒤를 바라보고 꾸준히 지원해 주세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떨구며 제 성급함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차분함과 인내심을 갖고,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며 노력과 마음을 보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톨스토이 상금 전액을 기부해 러시아 국립공원과 한국법보전기금의 공동연구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양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호랑이가 한국의 자연유산이자 대한독립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심으로,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하나씩 다음 계단이 보였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책임의 범위를 ‘개인’에 머물지 않고 ‘세계’로 확장하고, 5년이 아닌 3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꾸준히 기억하고 행동한다면, 세상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쯤 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이루고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단 하나뿐인 이 푸른 행성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저도 김주혜 작가님의 강연을 정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작가님과는 예전에 저희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우연히 출연하셨을 때 처음 뵙 적이 있어요. 그때 인터넷 라이브

로 작가님을 보면서 속으로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날은 노벨문학상을 한강 작가님이 수상한 날이었고, 동시에 김주혜 작가께서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으신 날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김주혜 작가를 꼭 세바시에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주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사실 오늘 시작 전에, 캐나다에서 오신 한 분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소식과 같은 날에 겹쳐서, 작가님의 수상이 빛을 발하지 못한 게 아닌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저로서는 격이 한참 상승된 날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강 작가님께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 진행자 : 전혀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강연을 통해 세계시민성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정말 좋은 통찰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중분들도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셨는데요, 그만큼 오늘 강연이 큰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이제 청중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중 :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선(베로니카 킴)입니다. 먼저 김주혜 작가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는 아픔과 어두운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캐나



다에서 자랐는데, 다문화 사회임에도 정체성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받고 지금은 영국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혹시 살아오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 스스로를 지탱해 준 믿음이나 가치가 있었나요?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주혜 :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혼란을 겪는 것이 잘

못된 것처럼 들릴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조금 특이한 경우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인이라 는 정체성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 살든 혼란 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영국에 살지만, ‘한국계 미국인인데 영국에서 살고 있으니 한국계 미국인 영국인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그냥 한국인입니다. 프랑스에 살든, 독일에 살든, 저에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 혹은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디에서든 당당하고,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조금 어둡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인종차별을 겪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정체성이 확고하고 자신감과 자부심이 강하다면,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역사와 문학을 접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미술사에 관심이 많았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또한,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자연유산, 예를 들어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접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김주혜 작가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 대담

● 진행자 : 안녕하세요. 2025년 유네스코 토크의 사회를 맡은 정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유네스코 토크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지만, 시간 관계상 압축적으로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의 주제는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관련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화의 '역풍'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화는 많



왼쪽부터 정준희, 이재성, 김주혜, 알파고



정준희

언론학자이자 미디어 비평가로, 한양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KBS 1라디오의 <열린토론>과 TBS TV의 <정준희의 해시태그>, MBC의 <100분 토론>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식교양소셜클럽 해시칼리지를 운영 중이다. 2022년부터 유네스코 토크의 사회를 맡고 있다.

은 장점을 가져왔지만, 그만큼 단점과 갈등도 드러나고 있죠.

영국의 학자 데이비드 굿하트(David Goodhart)가 쓴 『엘리트가 버린 사람들(원제: The Road to Somewher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인 ‘썸웨어즈(Somewheres)’, 그리고 어디든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인 ‘애니웨어즈(Any-

wheres)'로 말이죠. 그런데 이 '애니웨어즈' 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보헤미안형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로든 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이주민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섬웨어즈'는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애니웨어즈를 부러워하지만, 동시에 이 주민처럼 자국에 들어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노와 적대감을 보이죠. 이렇게 부러움과 증오가 함께 작동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세계화의 역풍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세 분께서는 이런 주제와 깊이 맞닿은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공통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토크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알파고 기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제목만 보면 의미가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알파고 기자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또 어떤 모티브로 강연을 준비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세계화 속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 알파고 : '유네스코랑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냥 유네스코 관련 해시태그들이 있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파일을 열어보니 세부 주제가 꽤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더라고요.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처음엔 '국경을 넘어선 연대가 뭐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니,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 의식과 관련된 주제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평소에 세계시민 활동을 가까이에서 보고, 또 관련된 분들과 교류해 왔



기 때문에,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조합해 제 강연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이 부분은 김 작가님 강연 속에 아주 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제가 김 작가님의 강연에서 하나의 확장판처럼 풀어졌다고 느꼈어요. 가장 정확하게 정의해 주셨고, 또 작가님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주셨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 제목을 처음 보셨을 때, ‘나는 이렇게 해석해서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 **김주혜** : 제가 이번에 테마로 잡은 단어는 ‘책임’입니다. 저는 세계시민성이 단순히 우수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 최고가 되자는 목표가 중요한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세계 최고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 **진행자** : 강연 중에 ‘책임’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 김주혜 : 아까 보니까 이재성 선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귀여워요! 귀여워요!” 하면서 환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알파고 님은 워낙 유쾌하시고 농담도 많이 하셔서 청중들이 막 까르르 웃으셨죠. 그런데 저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마다 ‘책임’까지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저는 프롬프터와 눈을 마주치며 겨우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 알파고 : 저희는 요리로 따지면 애피타이저와 수프 정도였어요. 작가님은 메인 디시랄까요? (웃음)

● 진행자 : 알파고 기자님, 굉장히 좋은 비유였어요. (웃음) 메인



디시를 위한 일종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재성 선수는 첫 강연이 실 뿐만 아니라,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강연을 하시게 되어 많은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 **이재성** : 두 분께서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오히려 먼저 하기 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세계시민이라는 건 결국은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유네스코 프렌즈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안에 '투게더'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함께하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또 저는 한국인이지만 현재 독일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독일인을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어울려 갈 것인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결국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동료들을 사랑하시나요?

● **이재성** : 사랑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또 인내하고 있습니다. (웃음)

## 이해, 책임, 그리고 실천

● **진행자** : 두 번째로, 알파고 기자님께서는 아까 ‘지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덕체’까지 더해 세계시민성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주혜 작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엑스팻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는 애니웨어와 섬웨어 얘기를 했습니다만, 외국 생활을 멋지게 경험하고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것이 세계시민성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세계시민은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책임’이라는 개념을 연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김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세계시민성’의 핵심 요건을 몇 가지로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주혜** : 글쎄요. ‘책임’이라는 말을 이미 많이 해서, 이 메시지를 또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아까 ‘이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해가 있으면 그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또 그에 따른 일종의 도리, 의무(duty)도 생기죠. 제가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말은, 개인이나 자국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지구, 이 행성 전체를 자신의 책무로 범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에 속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책임감,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따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김주혜** :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이라는 말은 하기가 쉽습니다.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제 친구나 동료 작가들을 보면, 지구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이 공격을 받거나 폭탄이 터지고, 어딘가에서 지진이 나면 곧바로 SNS에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너무 슬프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타도하라” 등 다양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짧고 쉽습니다. 문제는, 말은 그렇게 값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것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단순히 SNS에 짧은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실천으로 옮기시는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비슷한 질문들이 아마 강연 속에서 많이 녹아 있었는데요. 이재성 선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계시민이란 무엇이고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 **이재성** : 저는 김주혜 작가님의 말씀에 ‘실천’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실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누는 것도 부담이 있고 제 안에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용기 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알파고** :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축구를 시켜보세요.

● **이재성** : (웃음) 이런 자리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각 을 공유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분명 어떤 변화의 씨앗이 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생각들이 행동으로 이 어진다면, 결국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사실 이번 준비 과정을 보면서, 이재성 선수께 서 초고를 작성하신 뒤 강연 원고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실시 간으로 받아봤거든요. 혹시 아셨나요? (웃음)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축구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는 모습을 보며, ‘이 강연을 준비하시면서도 성장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 이재성 : 네 맞습니다. 뒤에 보시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강연은 저에게 ‘저를 바꾸는 시간 15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알파고 기자님은 아까 ‘지덕, 지덕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혹시 더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 알파고 : 사실 아까 질문을 받다보니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



는데, 오늘 강연 때 이 부분을 조금 넣긴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세계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개방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찰나에 중동에서 시리아 내전이 터지면서 유럽에서 난민 위기가 발생했죠. 그래서 ‘세계시민’ 이야기를 꺼내면, ‘아, 난민 받자는 얘기구나’라는 결론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려워요. 또,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해시태그들이 많다 보니, 특정 해시태그 하나를 언급하면 나머지까지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들은 분리해서 차분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금 작가님이 책임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어요. 예를 들어, 한국이란 이제 더 이상 뒤쳐진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 문화, 기술, 민주주의, 법치주의 모두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튀르키예와 인도도 한국처럼 드라마, 영화 분야의 강대국이에요. 제가 남미에 가면 “한국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는데, 그만큼 한국 드라마가 성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인도인이나 튀르키예 사람들은 외국인을 만나도 ‘우리 영화 봤어?’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외국인을 보면, ‘두유 노 스퀴드 게임(오징어 게임 알아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태도가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차별 없는 공존,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 **진행자** : 세계 속에서 한국이라는 존재는 굳이 우리가 입증할 필요가 없는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유 노 김치?’ 같은 질문을 던지거나, 과거에는 ‘두유 노 박지성?’ 이었다면 앞으로는 ‘두유 노 이재성?’이 될지도 모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말씀해주신 세계시민의 요건들이 아직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것을 갖추고 싶어도 때로는 역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백래시(Backlash)’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소극적이 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조건들이 조금 더 갖춰진다면, 그 상태는 어떤 모습

일까요? 다시 말하면, 일종의 상상 속 모습일 수도 있고, 유토피아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시민성이 잘 갖춰진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경험하게 될까요?

‘주토피아’라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예로 들면, 겉으로는 다양한 존재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함께 살아가지만, 알고 보면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고, 작은 갈등의 불씨가 던져지면 금세 분열이 일어나는 구조인 거죠. 우리 사회도 비슷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부족함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낯선 존재에 대한 거부감, 증오, 혐오가 쉽게 터져 나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후자의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런 부족함을 채운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를 경험할까요? 과연 어떤 세상이 가능할까요?

● 김주혜 :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알파고 님이 하신 이야기를 조금 확장해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디아스포라에 대해 질문하신 것처럼, 해외에 나가 있는 한민족을 측은하게 여기고 많이 응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해외에서 성공하면 ‘같은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미국에서 인종 차별을 받으면 ‘미국이



나쁘다'며 함께 분노하죠. 또, 해외에서 수상하거나 좋은 성과를 내면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왜 남의 나라에서 온 이민자나 난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노력할 때는, 똑같이 가엾게 여기거나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디아스포라가 해외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건 당연하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왜 난민이나 이민자가 한국에서 돈 벌려고하거나, 전쟁을 피해 도망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겁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소말리아 구조 사업'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저는 『밤새들의 도시』의 수익금 일부를 카리타스 소말리아(Caritas Somalia)라는 가톨릭 비영리 구조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선인세를 받자마자 기부했고, 그 돈은 북소말리아의 한 학교 운영비로 약 5개월간 쓰였습니다. 제가 왜 소말리아를 선택했느냐하면, 1996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당시 90년대 초중반에 소말리아 기아 문제가 세계적 이슈였어요. 그때 한국은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쓰던 시절이었는데, 어린 저에게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 이렇게 가난하고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처럼 생긴 것이 정상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소말리아라는 나라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세계는 넓은 곳이고, 나와 전혀 다른 생김새와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사람들도 기아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선진국이 되었지만, 소말리아는 여전히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비교조차 할 수 없죠. 어린 시절, 어른들이 소말리아에 대해 “왜 저런 데서 살까?”, “왜 먹이지도 못하면서 애는 많이 낳나?”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나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는데, 놀랍게도 선진국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로는 오지 마라’, ‘애는 낳지 마라’ 결국 이 말은 ‘살지도 말고, 후손도 잊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하지만 소말리아 사람들이 바보라서 살기 힘든 곳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유목과 농경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초래하지 않은 기후 위기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전쟁과 내전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 겁니다. 특히 기후 위기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선진국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준 문제 아닙니까? 이제 한국도 그 선진국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살 곳이 없습니다. 흉년이 이어지고, 가뭄으로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천 마리 가축이 굶어 죽고, 비쩍 마른 소말리아인들은 결국 이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고생하는 것처럼, 그들도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곧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받아들이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 사회적으로 우리의 사고가 더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굳이 제 언어로 요약하자면 ‘배부른 자의 값싼 연민’이나 ‘아직도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자의 강팍함’이 아닌, 그저 우리와 같은 존재로서 이해하고, 진정한 관심을 가지되,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아니, 지금 우리 주변에도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 먼 나라 사람들을 걱정하느냐,’ 혹은 ‘사람도 못 먹고 못 사는데, 무슨 강아지나 고양이를 챙기느냐’ 하는 태도요.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상태는, 바로 그 강팍함을 깨는 것이겠죠. 이재성 선수께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재성** : 아까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독일에 갔을 때 ‘아시아 선수가 뭘 잘하겠어’라는 의심의 시선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세계시민적인 가치가 자리 잡고, 평화롭고 공존하는 문화가 생긴다면, 아시아 선수들, 특히 한국 선수

들이 유럽 무대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대표팀도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팀이 되겠죠. 아까 사회자께서 강연이 끝난 후 ‘월드컵 16강을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때가 되면 우승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 **진행자** : 결국 더 많이 섞이고, 그 결과 우리도 더 잘하게 되는 상태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알파고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알파고** : 사회자님, 축구를 하셨다면 아마 성공적인 선수가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데서 골을 넣으시거든요. (웃음) 저는 강연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런 갈등이나 혐오 문제는 잘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딘가 도덕적인 ‘평크’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메우느냐는 결국 교육의 몫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중요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교육부는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혹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먼저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걸까요?

● 알파고 :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서 교육부에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존중을 향한 첫 걸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여러분들께도 마이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통적으로 나온 키워드가 ‘존중’이잖아요. 이해와 존중.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멋지고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현실에서는 본능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존중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마 무시나 무관심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폄훼 같은 행동도 있을 겁니다. 그 배경에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자리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존중은 본능적으로 하기 어려운 행동일까요? 억지로 애를 써야지만 존중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존중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잘 꺼내 쓰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나는 왜 상대를 존중하지 못했을까? 또 왜 남들은 나를 존중하지 못했을까?’ 이런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재



성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성** : 존중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앞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후배들을 보면서 ‘건방지다’, 혹은 ‘예의가 없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후배일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느끼면서 말이죠. 그런데 먼저 그렇게 단정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이재성 선수도 어느덧 후배가 더 많아진 나이가 되셨네요. 이번엔 알파고님께 여쭙죠. 평소에 존중을 잘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솔직히 조금 어려워하시는 편인가요?

● 알파고 :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인간으로서 불가피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있는 환경에서 외국인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말이 잘 통하지 않거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저도 모르게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원래는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대하지만, 언어적, 문화적 적응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 상황을 주도해야 할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마치 제 자녀를 챙기는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 분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저보다 낮은 존재로 느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본능적인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하다’는 인식을 계속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니 지방에 내려가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면 불만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건 우리 사회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동등함이라는 인식이 사라지는 순간, 존중도 사라진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는 점, 공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민감한 주제는 잘 다뤄지지 않았고, 금기시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주혜 작가님은 이 ‘존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주혜** : 저는 알파고 기자님이 굉장히 솔직한 대답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최대한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유명인이나 성공한 사람, 혹은 동네 슈퍼 아저씨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제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인간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태도는 제가 자라온 환경과, 이민자로서의 경험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다른 사람들이 저나 제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하며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살았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존중이 부족한 이유가 종종 ‘백인으로서의 특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두려워서, 미리 존중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권을 지키려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고 해서 내 권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점점 더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비슷한 말로,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것을 남한테 겪게 하지 말라’는 윤리의 대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자라면서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이, 남을 존중하려는 태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아까 청중 여러분께서 한 분씩 질문을 하셨는데, 그 시간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고 기자님께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 청중과의 대화



● 청중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알파고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 정치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존의 위협' 혹은 만들어진 '가공된 위협'을 통해서 차별과 혐오

를 확산시키고, 난민 문제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침묵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의견을 퍼뜨리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고요.

아까 김주혜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문제를 바꿔 나가려면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단순히 SNS에 "이건 안 된다", "난민을 받아야 한다" 같은 글을 올리는 건 너무 쉽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넘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실천을 하면 좋을까요? 또, 이런 '가공된 혐오'와 배제, 그리고 '조작된 위협'을 통해 난민이나 외국

인 근로자 문제에 대한 논의를 침묵시키려는 시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진행자** : 방금 ‘가공된 위협’이란 표현을 쓰셨는데요. 실존하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위협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지금, ‘가공된 한국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웃음)

● **알파고** : 중동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님이 손님을 싫어하고, 집주인은 둘 다 싫어한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아직 손님인데, 더 많은 난민이나 이민자가 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작은 특권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에 실제로 난민이 많이 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 **진행자** : 거의 없죠.

● **알파고** : 맞아요. 한국에 난민이 몰려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노동자를 데려오긴 하지만, 그 것도 2,3년 계약직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난민 혐오를 확산시키는 커뮤니티를 보면, 숫자와 사실들이 모두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난민 신청 수가 200% 늘어났다’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치 상으로는 20명에서 40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200%라는 숫자만 강조하면 굉장히 크게 들리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유럽도 이제 난민 받기를 포기했다.” 하지만 독일이 1년에 난민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숫자는, 한국에서 난민 신청하는 사람 전체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약 유럽이 정말로 포기했다면, 그 숫자조차 존재하지 않겠죠. 여전히 받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는 주제에, 누군가 와서 거짓과 왜곡으로 ‘아수라장’을 만들 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왜곡이 어느 순간부터 진실처럼 굳어질 겁니다. 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이민자나 외국인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퍼뜨린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예를 들어 한국과 큰 관계가 없는 나라를 두고, “그 나라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같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상관없으니 무시하자’고 넘어가지 마세요. 먼저 그게 사실인지 확인한 후, 거짓이라면 “왜 근거 없는 얘기를 퍼뜨리냐”고 확실히 제지하고, 망신을 줘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은 망신을 당해도 그게 망신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자정까지 가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웃음). 자, 이제 두 번째로, 김주혜 작가님께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 청중 :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는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세 분 강연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



지만 동시에, 언어보다 더 본질적이고 선행되어야 하는 태도나 감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세계시민이 되려면 영어가 중요하다”고 종종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진정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단순히 언어 능력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국경과 경계를 넘어서 연대하고 정체성을 확장하기 위해 언어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보시나요? 작가님께서는 소설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셨고, 그 과정에서 성공적인 경험도 있으셨기에 이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언어보다 먼저 갖춰야 할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뭔가 유도 질문 같아요, 혹시 ‘영어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건 아니죠? (웃음)

● **김주혜** : 언어는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도 영어로 글을 쓰는 사람이고, 세계적으로 영어가 널리 쓰이지만, 영어의 중요성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영어가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언어처럼 여겨지지만,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고 서너 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독일인은 “나는 언어를 네 개밖에 못 해”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를 말하는 거였더라고요. 영어랑 모국어인 독일어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포함을 안 한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언어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한국어부터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한국어의 가치도 모른 채 영어만 배우려는 태도는 답답합니다. 영어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언어, 말하자면 ‘언어의 0단계’입니다. 오히려 지금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건 한국어입니다.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밤새들의 도시』 한국어판 번역본을 검토할 때, 편집자님들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상’이라고 쓴 걸 자꾸 ‘스토리’라고 고치고, ‘문지기’ 대신 ‘도어맨’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저는 왜 아름다운 한국어 단어를 두고 영어를 쓰느냐고 말씀드렸죠. 영어를 쓴다고 글의 격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말을 적절하게 쓰되, 꼭 필요 한 경우에만 외국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교사분께 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이렇게 국어를 사랑하는 건 저희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국어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세계화를 추진하고, 세계시민성을 키우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어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영어와 제3, 제4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화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네요. ‘언어를 한 4개쯤 해야 된다’에서 ‘영어는 기본이다’, 또 ‘모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 외국어 감각을 키우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성 선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신 분이 계신데요.

● **청중** :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홍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관련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귀화한 선수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에 발탁이 된다면, 이재성 선수는 그 선수를 어떻게 존중하고, 동료들과 어떻게 소통하실 건가요? 또, 제 생각에는 대표팀에 귀화 선수가 한두 명 합류하면 팀이 더 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알파고** : 자리가 있다면 저는 잘 뛰거든요. (웃음)

● **진행자** : 실력으로는 충분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재성 선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이재성** : 오늘 알파고 기자님을 보니까, 귀화 선수가 온다고 해도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대표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대표팀은 '승리'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하는 집단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 이기는 게 최고죠. 협력하기 위해 쌓아온 경험

을 살릴 때네요. 귀화 선수에 대한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데요. 사전에 받은 질문들을 시간 관계상 모두 다루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시민’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연대’, ‘국제 협력’, ‘지속 가능성’, ‘평등’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흥미롭게도 ‘영어’, ‘국가’, ‘명예’, ‘조국’이라는 단어도 보이네요.

‘세계시민’이라는 말 속에는 어쩌면 상반되어 보이는 단어들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차이에 대한 존중, 지구에 대한 소속감, 책임,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연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런 가치를 실천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파고 기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모두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라는 일종의 무력감, 혹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닌가?’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세 분 모두 처음부터 ‘세계시민이 되겠다’는 목표로 시작하셨다기보다는,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성을 키워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실천을 했더니 무력감이 줄고, 더 나은 행동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 “이런 것부터 해보라”고 조언을 하신다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재성 선수께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재성**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선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신,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고,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대화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관계를 쌓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연대할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호되게 꾸짖거나 비난하기보다 관심을 갖고 유심히 지켜보라는 따뜻한 말씀을 주셨네요. 김주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주혜 : 지금 지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온 세계가 함께 겪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국이 너무나도 더운 거 알고 계시죠? 저도 여름에 한국에 올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답은 ‘비건’입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거의 20년 동안 비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식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약 73%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즉 4분의 1을 절감한다는 뜻이죠. 완전한 비건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중 몇 번만 비건 식단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비건 데이’처럼요. 식생활을 조금씩 바꾸면, 몸과 정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비건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선택한 분야에서 ‘힘든 일’을 실천해보세요. 그것이 돈이 들 수도 있고, 시간, 혹은 에너지가 들 수도 있어요. 그 자원을 바쳐 희생하는 것, 그것이 세계시민성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기후위기만큼 세계시민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분야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출발이 될 겁니다. 비건이나 일상 속의 힘든 일 실천 등 다양한 조언도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알파고 기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알파고** : 제 바람은 외계인들이 빨리 지구를 침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인류가 비로소 ‘우리는 모두 같은 동포’라는 사실을 깨달을 테니까요.

● **진행자** : 제가 외계인을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웃음) 오늘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며 오늘 토크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유발 하라리(Yubal Harari)라는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의 통찰을 좋아합니다. 그는 『사피엔스』에서, 인류가 ‘협력하는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의 발언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협력하는 두뇌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으며, 결국 누군가에게 먹히거나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협력하는 두뇌’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더 이상 ‘사피엔스’로 존재하기를 멈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공존의 지혜와 철학으로

여기까지 온 사피엔스들이 이제는 그 두뇌를 잘못된 데 쓰지 말고, 이해와 공존을 위해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우리를 더 나은 실천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런 상상과 지혜를 모으는 데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년을 이 여정에 함께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앞으로도 이런 공론의 장을 용감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힘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이상으로 유네스코 토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만드는 미래" 70GETHER 캠페인



미래세대가 떠안을  
인구소멸의 위험



AI 열풍 속에  
가려진 윤리문제



눈부신 발전이  
초래한 기후위기

'투게더 브레이슬릿'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바람직한 미래 변화를 만드는 우리 모두의 실천입니다.



지금 바로 정기후원에 가입하시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 국경을 넘은 연대: 정체성의 확장

발행일	2025년 11월 20일
저자	알파고 시나씨 이재성 김주혜 정준희
발행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인	윤병순
편집	신종범, 양지원, 이의진
표지디자인	김기현
본문디자인	정명진
주소	서울시 종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유네스코회관
전화	02-6958-4100
전자우편	talk@unesco.or.kr
홈페이지	<a href="http://www.unesco.or.kr">www.unesco.or.kr</a>
페이스북	<a href="https://www.facebook.com/unescokr">https://www.facebook.com/unescokr</a>
인스타그램	<a href="https://www.instagram.com/unescokor/">https://www.instagram.com/unescokor/</a>
ISBN	979-11-90615-67-9 (03300)